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배경과 출국 전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Study of the Backgrounds of Filipino Female Immigrants' Marriage with Koreans and Pre-education Programs about the Korean Family Culture in the Philippines for Filipino Immigrants to Korea

채옥희* · 홍 달아기 · 송복희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전공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Chae, Ock Hi* · Hong, Dal Ah Gi · Song, Bok 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Wonkwang University

Iksan Multi 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bstract

In order to promote and comprehend marriage immigrants' cultu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life of their families in their counties. For this study, data by a Philippine CFO(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has been analyzed, and the study researcher has attended an educational program run by the PDOS(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Al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migrants' families in their country, interviews have been done with some of the CFO employees, people arranged to immigrate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female immigrants who are married. First, Filipino female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arriage with a foreign male. Most immigrants are from the rural parts of their country, and their families tend to rely on their daughters more than their sons. Therefore, they decide to marry Korean males and immigrate in order to support their families. However many of them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Korea. Second, Philippine's family system is of bilateral kinship, and traditionally, men and women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Filipino females tend to be well-educated, outgoing, and vibrant. Thus, they can create an active role in married life for themselves and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Lastly, based on videos and class materials on the topic of domestic violence that are used in the pre-educational programs for females planning to immigrate to Korea, the content of the program is to be revised.

Keywords: marriage immigrants' culture, Filipino females, positive attitude, bilateral kinship, pre-educational programs.

I. 서론

국제결혼은 인종, 국가, 민족 간의 문제이외에 가족영역에서 과급효과를 가진다.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화가 동

시에 진행되고 가난하면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갖는 빈곤국 여성들은 이주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주 배경과 맥락은 필리핀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제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본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Chae, Ock Hi
Tel: 063-850-6654 Fax: 063-850-6047
Email: chae@wku.ac.kr

필리핀은 아시아 최대의 해외노동 송출국으로 자국민의 이주노동이 일의 내용이나 계약조건이 노동형태를 떠 보면 국제결혼은 가족재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성적 서비스와 가사노동이라는 사적인 노동형태의 관점에서 국제결혼은 가족형태의 변형된 노동이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초국적 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Constable(2003)이 지적한 후진국 여성과 선진국 남성 사이에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가사노동간의 맞교환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과거결혼의 동기나 현재 결혼생활의 전 과정에 나타난 결혼생활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필연적으로 전개될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 실제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은 국제결혼가족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만 보려는 경향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갈등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제결혼관계에서 수용해야하는 상대 문화의 범위는 배우자 국가에 대한 지식, 기술, 행동, 태도, 신념들의 유형과 인간사회에서 제대로 전수되는 물질 뿐 아니라 인간의 지성, 사회, 기술, 정치, 경제, 도덕, 종교 및 심미적 문화수행과 연관된 전 범위 모두를 포함한다(Pai & Adler, 2001)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 가족관계, 자녀교육의 문제 등은 학문적, 사회적 이해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송출국의 어떤 여성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이주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생활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결혼 이전에 살았던 필리핀의 원가족속에서 생활방식이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Napier(1988)는 가족을 형성하면서 부부친밀감이 각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에 기초하여 발달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가족 경험과 가족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전 필리핀 여성의 가족 속에서의 삶을 살펴보고, 필리핀 정부에서 국제결혼 하기 전에 시행하는 한국가족과 문화에 대한 교육내용을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필리핀 가정생활문화의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여 앞으로 필리핀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남성들에게 제시하는 바가 클 것이며, 필리핀정부에서 실시하는 한국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II.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가정문화

1. 가족관계적 측면

필리핀은 서구적 아시아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랜 스페인 통치기간을 거쳐 전통이 상당히 희석되어왔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문화가 필리핀의 정체성을 마비시키고 있으나 가족주의적 전통은 필리핀 가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필리핀은 전통적 가치로 가족적 유대, 친족적 전통, 종교성과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등을 전통의 영향으로 들 수 있다. 필리핀의 사회조직 단위는 가족이 출발점을 이루며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이 중핵적인 구성원이 되며, 다른 동남아시아 사회들과 유사하게 부계와 모계를 모두 친족범위에 포함시킨다.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고 가족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 상위 개념으로 간주되는 가족주의가 강하며, 친족은 상호협력적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핵가족적 특성을 지닌다(김민정 외, 2006; 박희, 2002). 부모부양이나 자녀양육 등도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자녀를 돌보는 등 많은 자녀들이 각기 다른 나라로 취업해가거나 결혼한 경우 그들 자녀들은 필리핀친정에 맡겨져 양육되거나 보호하는 등의 가족기능이 수행되는 초국적 가족이 형성(김희주, 은선경, 2007; Rhacel, 2005/2009)된다.

필리핀은 양변친족관계(bilateral kinship)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의 원가족이 모두 동등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이라도 친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정가족을 원조하고 집안일에 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박희, 2002; 보건복지부, 2005; Kelaher et al., 2001)한다.

필리핀사회는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다는 점에서 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이나 가족행사, 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두지 않고 관여 한다. 특히 가족부양과 관련해서 능력이 되면 아들과 딸 구분 없이 경제적 원조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간주된다. 아들, 딸 모두 부모부양의 책임이 있지만 아들보다는 딸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더 큰 특징을 지녔다. 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나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며 결혼이나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김민정, 2002; 신란

회, 2005)한다.

2. 사회문화적 측면

필리핀사회에서 종교도 가족주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교적 축제도 가족의 인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교회의식에 기초한 대부모제도에 의해서 유사 가족주의적 성격을 유지해 왔다. 가톨릭의 윤리와 사상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다. 미혼모가 직접적인 친족의 지원을 받으며 그 자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수용되기도 하고 사회적응 기관에 수용자가 항상 부족하며 양로원이나 고아원이 드문 것도 그 때문이다

필리핀의 친족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시기에 상호 협력적으로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개인에 기초한 일종의 친족이며 핵 가족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친족호칭에서도 부계와 모계의 엄격한 구분이나 성별 구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주의 영향은 기업운영이나 상업 활동에서도 가족이 관련되어있다. 소규모 사업에서도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은 부사장이나 이사 또는 회계담당의 역할을 맡으며 대기업의 경우 주주들도 친족 집단의 구성원인 것이 일반적이다.

필리핀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는 가족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강화된다. 가족혈연관계는 사회의 모든 분야와 기업에서도 가족경영주의가 가장 중요시 된다. 필리핀사회에서 가족의 중심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필리핀인은 그들 자신과 직접적이거나 내면적인 접촉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거나 간섭 받을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인간관계가 상당히 느슨하게 구조화되어있기 때문에 사람간의 협약과 약속들을 기일 내에 지키거나 정형화된 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시간엄수가 절대 예의바른 행동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5분쯤 지나야 시간엄수로 취급(Rochas & Rochas, 2006/2007)된다.

개인적으로 시간에 기며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안위와 안정을 찾는 데 중심을 둔다. 조바심을 내면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려는 습성이 있다.

필리핀인은 자신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 가급적이면 양보하고 면전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며 절대로 거칠게 말하거나 험한 말을 쓰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Rochas & Rochas, 2006/2007).

이상에서 살펴본 필리핀의 삶은 양변친족체제 가족 문화에 기인하여 필리핀여성의 가족관과 결혼관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친정에 대한 지원 의무감으로 가족을 위한 이주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평등한 부부관계, 부부간 애정표현의 중요성 등의 가족 문화를 갖고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한국적 집단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자 관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에서의 가족주의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결혼해도 친정을 보살펴야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Ⅲ.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동기와 출국 전 교육

1.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동기

필리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사회현상이다. 이는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기간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적 풍토가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도시지역의 성비불균형은 7,00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서 활성화된 국내외 이동과 이를 통한 이주 멘탈리티(migration mentality)와 척박한 삶에서 벗어나거나 보다는 삶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결혼이동 욕구, 섹스 관광과 함께 등장한 국제결혼알선사업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깔려있다(Cahill, 1990).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대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이 캐나다이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은 중국의 조선족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필리핀여성은 통일교를 통해 들어왔지만 소수에 불과하였다.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이후 CFO)의 1990년대 자료를 기반으로 필리핀여성이 한국으로 결혼하기

시작한 1990년 초기에는 10명 내외였으나 1996년에 23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9년에는 422명으로 급증하다가 2004년부터 289명에서 2005년에는 480명까지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57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CFO, 2008).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호주, 대만에 비하면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하는 필리핀여성은 0.2%로 적은 수이다.

필리핀여성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오히려 국제결혼을 선호한다. 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은 일본이나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에 비해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필리핀여성들의 평균연령은 일본, 대만 및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다른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에 비해 그 연령이 낮다(CFO, 200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아내 되기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잘 살고 싶다는 욕망과 본국의 가족을 돕고 싶은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김현경, 신동주, 2008)으로 나타났다. 김정석(2009)은 필리핀여성들의 결혼이주 동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으려는 이상향 또는 코리아드림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필리핀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필리핀정부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결혼 중매업이 성행하여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제적 빈곤과 남성들의 높은 실업률은 국제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1970년대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노동력해의 수출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국기업의 필리핀 현지지사 등이 한국남성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여성 대부분의 이주 동기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이나 이주노동을 선택하며, 국제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백인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백인 중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미국남성을 가장 좋아하고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다. 일본이나 대만,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은 미혼의 비율이 높고 여성의 평균연령이 낮은 특징(김정석, 2009)을 보이고 있다.

한국남성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근면 성실해 보이며,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이후 PDOS)에서 만난 여성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았다. 이들의 질문 속에서는 “한국남성들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생활하느냐?” “한국남성들은 폭력적이나?”고도 질문하였으나 이들 질문 속에는 한국으로 시집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결혼에 대한 부푼 꿈과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전북대외협력국, 2009)고 보고있다.

2. 출국 전 한국생활 교육내용

필리핀국에서 시행하는 PDOS의 교육내용은 외국으로 이주나 결혼하려는 여성들에게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다. PDOS의 이수확인증을 갖추어야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특히 한국으로 결혼하는 여성들에게는 2일간 16시간의 교육을 시키며 한국의 다른 나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게는 1일간 8시간의 교육을 한다. 한국으로 가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한국가정생활문화는 필리핀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CFO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PDOS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표 1>과 같다.

PDOS의 교육에서 첫날은 필리핀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고 둘째 날에는 한국가정문화, 전통, 관습이 필리핀과 다를 것을 강조하고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필리핀과 한국의 문화, 관습, 전통을 가족, 어르신, 자녀들, 결혼, 부인, 아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한국의 도시생활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한국으로 시집가려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결혼 문제를 방지하는 법과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나 오히려 편견을 갖게 하여 초기 결혼생활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결혼 관계에서 수용해야하는 상대 문화의 범위는 배우자 국가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 신념들의 유형과 인간사회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물질 뿐 아니라 인간의 지성,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종교 및 심미적 문화 수행과 연관된 전 범위 모두를 포함한다(Pai & Adler, 2001)고 볼 수 있다.

PDOS의 교육내용도 인간사회에서 세대로 전수되어 문화가 된 가족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필리핀가족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심한 한국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생

〈표 1〉 PDOS의 필리핀과 한국의 가정생활교육내용

문화, 관습 그리고 전통		
구분	필리핀	한국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가족들은 직계가족 또는 혼자 독립적으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보통 큰 아들, 딸 또는 막내가 어른들, 특히 부모님을 보살펴드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는 커플간의 결혼은 두개인의 결합보다는 두 가정의 결합을 의미한다. 3~4대가 함께 산다.
부모님/어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으로 젊은이들은 어른에게 용서를 구하나 서양의 영향으로 인해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의 관점이나 의견을 나눈다. 부모님의 은덕 때문에 자녀들은 때가되면 부모님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채워줄 의무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쟁 중에는 젊은이들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어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한다. 부모님들은 장남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을 보편화되었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헌신적인 마음을 표현한다.
자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남이나 장녀는 아버님의 부재시에 가족의 복지를 책임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는 장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효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애정은 전통적으로 한국가정의 규범적인 토대가 되어왔다. 이는 아들의 여지없는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들은 순종적으로 자라온다.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들은 보통 그들의 파트너에 대해 선호하는 것들이 있지만 남녀가 그의/그녀의 남편/부인이 되기로 자발적으로 사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을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혼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어있다. 어떤 가족들/부모님들은 중매쟁이를 찾는다.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인의 의무는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을 기르는 것이다. 부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갖거나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요즘 여성들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인의 의무는 남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은 가족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특별한 케이스에는 부인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가족의 가장이 가정관리를 맡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은 가족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학대 감정적 학대 사회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디오나 ppt자료로 교육하고 있다.
국제결혼에서의 문제를 방지하는 법		
나	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안다 당신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의 상대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해라 당신의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이해하도록 해라. 필리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인/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인식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의 문화, 관습, 그리고 전통을 공부하고 이해한다. 예) 한국부인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의 상대에게 당신의 문화, 관습 그리고 전통을 소개해준다. 그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어라. 	

국제결혼에서의 문제를 방지하는 법	
나	그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장벽을 피한다.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고 쓰는 법을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의 상대에게 당신의 모국어를 가르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존중받고 싶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 상대와 그의/그녀의 가족을 존중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옳은 이유 때문에 결혼하라 당신의 관계에 강한 근거를 갖도록 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 그가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도록 한다.
학대가 있을 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가 있었을 때의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한다. 자신의 외국어로 적는다. 믿을 만한 친척, 친구,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또는 NGO에게 알려라.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을 때 병원진료를 받고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알려라. 영사관, 필리핀대사관, 사회복지사, 변호사, NGO, 신부님/목사님/성직자들에게 즉시 전화를 하든지 보고 하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의 행위를 알리는 첫 번째 현상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기혼자 힘으로 정의를 택하지 말아라. 보고서에 거짓증언을 하지 말아라. 파트너를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기 위해서 학대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필리핀가족은 양면적 친족체제이며 한국가족은 아직도 일변적인 가부장체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필리핀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부모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해온 필리핀여성들은 친정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남편들은 본가와 처가까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현실이다. 한편 양성평등화 되어있는 필리핀과 한국남성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의 차이에 대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출국 전 필리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이전의 생활과 경험들에 대한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 획득과정에서 통계적 대표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례중심양식을 채택하였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대부분 양적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어 한국어가 서투른 이들이 처한 생활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객관적, 주관적 측면에서 볼 수 있어 섬세한 자

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리핀에서 시행하는 출국 전 여성에 대한 소양교육을 조사하기 위해 2009년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국제결혼유관기관인 CFO의 관계자들과 2 일간에 걸쳐 면담 하였다.

한편 CFO로부터 PDOS(출국 전 소양교육프로그램)을 위탁받은 민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으로 결혼이주 예정인 24명의 여성들과 16시간의 교육시간을 같이하면서 교육과정과 내용을 현장에서 관찰하였고 전라북도도 결혼하려는 5명의 필리핀여성과 간담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이미 한국으로 결혼해온 10명중 사례 15의 친정집을 방문하여 마을과 가정의 생활상을 관찰하였다.

한편 2009년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례자 각각 2시간이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출국 전 생활과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인터뷰내용은 필리핀 가족에서 생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위해서 가족 수, 형제 수, 출생순위, 학력, 결혼동기, 직업여부, 부모연령, 부모직업 등과 출국 전 필리핀에서 교육받은 한국생활문화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질문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출국 전 가족 상황

아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나이는 80대

가 1명, 60대는 2명이며 대다수가 50대의 부모가 생존하나 아버지는 60대이며 어머니는 50대인경우도 4명이 있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2명, 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1명이다.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혼은 없다.

부모의 직업 중 10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어업이나 기차회사를 다니거나 막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 5명이다. 사례자들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닐라까지 오는 데 버스로 3일간, 배를 타고 3박4일 동안 오게 되는 사례자도 1명씩이며 보통 버스로 2시간에서 20시간이상 마닐라시까지 와서 4시간이상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는 여러 연구들(김현경, 신동주, 2008)에서와 같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결혼이주 여성들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

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명이며, 둘째가 7명, 셋째가 3명이며 막내도 2명이다. 형제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 있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가족상황과 국제결혼동기

필리핀은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개인의 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이나 가족행사에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두지 않고 관여한다. 특

〈표 2〉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가족 상황

사례	나이	교육수준	친정부모 연령	부모 직업	형제 (명)	출생 순위	출신 지역	결혼전직업	마닐라까지 거리	결혼형태
1	24	고졸	부57 모50	농업	8	3	농촌	서비스직	버스 20시간	중매
2	36	고졸	부69 모69	어업	7	3	도시	약국 회계	비행기 30분	종교
3	32	전문대졸	부59 모58	농업	7	2	농촌	전기 회사	버스1시간30분	친구소개
4	24	전문대졸	모44	주부	7	2	도시	회계	비행기 2시간	친구소개
5	24	고졸	부54 모52	농업	8	3	농촌	무직	비행기 40분	중매
6	28	대졸	부54 모53	회사원	4	2	농촌	약국 보조	버스 2시간	중매
7	30	대졸	모52	주부	8	1	도시	자료 분석	마닐라시	친구
8	28	초졸	부60 모58	농업	6	2	농촌	농업	버스로 3일	종교
9	30	전문대졸	부57 모50	농업	2	1	농촌	회사	버스8시간	종교
10	23	고졸	부80 모75	농업	9	9	농촌	회사	배3박4일	중매
11	32	대졸	부63 모55	택시 기사	5	2	농촌	영어 교사	배 1박2일	목사
12	34	전문대졸	부55 모57	농업	6	1	농촌	간호사	버스 3시간	친구
13	27	대졸	부60 모59	농업	2	2	농촌	서비스직	비행기 5시간	중매
14	25	고졸	부50 모45	농업	2	2	농촌	정비 공장	비행기 1시간	언니
15	28	고졸	부60	농업	6	6	농촌	백화점	버스 20시간	중매

히 가족부양과 관련해서 능력이 되면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경제적 원조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간주(보건복지부, 2005; Kelaher *et al.*, 2001)된다.

사례 1은 마닐라에서 20시간이상 버스타고 도착하는 농촌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50대 후반으로 농사를 지으며 8남매를 교육시키기 위해 힘들어한다. 출생순위 셋째로 미국으로 결혼한 간호사인 언니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닐라에 나와 서비스직에 종사하였다. 자신도 미국으로 결혼하려고 하였지만 부모와 동생들 학비에 도움을 주고 잘 살아보려고 중매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결혼하였다.

사례 2는 어촌에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부모의 7남매 중 셋째로 언니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닐라근교의 약국회계로 일하면서 동생의 학비를 돕기에도 부족한 현실에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서 통일교의 도움으로 결혼했다.

사례 3은 마닐라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사이에서 7남매 중 둘째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기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여 동생들의 학비도 보태고 부모를 도왔으나 일을 해도 몸은 고달프고 월급은 적었다. 이때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가 한국으로 시집가면 영어선생을 하여 돈도 벌며 친정을 도울 수 있다기에 결혼나이라도 넘긴 차에 친구 소개로 결혼하였다.

사례 4는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 작은 도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무실에 근무하였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어머니가 동생들을 돌보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7남매의 둘째로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일자리를 박차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변 친구 말을 믿고 한국으로 결혼을 하였다.

사례 5는 마닐라까지 비행기로 40분 거리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8남매 중 셋째로 중학교 중퇴 후 말레이시아에서 가정부로 5년간 일하여 부모를 돕다가 귀국 후 결혼을 권유하는 중매업체의 소개로 한국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사례 6는 마닐라 근교에서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4남매 중 둘째로 대학을 졸업하고 약국보조로 일하였으나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불행한 언니의 생활을 보면서 외국으로 결혼할 결심을 하고 중매회사에 신청하였다.

사례 7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 혼자서 8남매를 교육시키느라 너무 힘들어 장녀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

터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월급이 적어 가족을 돕기에 너무 부족하여 고민하던 차에 한국으로 시집가서 영어강사도 하여 친정을 돕고 있는 친구언니의 소개로 손아래 동서가 되어 시집왔다.

사례 8은 마닐라까지 비행기는 1시간 걸리나 비행기를 타기위해서 10시간정도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고 비행기 표 값도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 2박3일 동안 버스를 타는 도로사정이 열악한 샤말주의 오지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 농사일을 돕다가 교회 소개로 한국으로 결혼해 온지 7년째이다. 부모는 생존해있지만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중이고 동생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시집가면 모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한국행을 결심하였다.

사례 9는 마닐라근교에서 두 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로 폭력이 심하여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증오했다. 어머니가 노점상으로 두 남매를 뒷바라지하였으나 사례자는 19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어 미혼모가 되었다. 집을 떠나 어머니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종교기관을 통하여 한국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온지 10년째이다.

민다나오섬이 가까운 작은 섬에서 온 사례 10은 9남매 중 막내이며 언니 오빠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외국으로 시집갈 결심을 하고 중매회사에 등록하였다. 부모는 80대로 생존하고 오빠, 언니의 자녀들을 합하면 가족은 58명이라고 말하면서 조카들은 얼굴도 모르고 다른 지역에 사는 둘째와 셋째 오빠도 지금까지 한두 번 만났다. 한국으로 시집오는데 3박4일간 배를 타고 마닐라에서 비행기타고 오는 긴 여정이었다. 오랜 고통을 참고 온 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사례 11은 부모와 어촌에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교사를 하였다. 7남매의 장녀로 가족을 돌보았으나 교사봉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아버지 수술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필리핀 내 한국인 목사가 한국에 가서 영어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결혼을 추천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사례 12는 농사를 짓는 부모의 6형제 중 장녀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마닐라 병원에서 일하다가 싱가포르 가서 병원에 근무하여 부모도 돕고 동생들 학비에 도움을 주었다. 외국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결혼

기회가 늦어져 마닐라로 귀국하여 쉬는 동안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사례 13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두 남매 중 둘째로 대학을 졸업하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중매회사에 결혼을 신청하였다.

사례 14는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다시 버스로 6시간이상 가야하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와 45세인 어머니와 동생 한명을 둔 단출한 가족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비공장에서 경리일을 보다가 한국으로 시집간 친척언니소개로 더 잘 살고 싶은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사례 15는 이사벨라주인 농촌지역에서 마닐라까지 버스기사 2인이 탑승하여 번갈아가며 운전하고 20시간 이상, 다시 지프차를 타고 1시간이상 간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 입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아버지와 1남 3여가 살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도시에서 일하면서 목사의 소개로 한국에 시집 온지 6년째이다. 연구자가 사례자의 친정에 간 날은 마을잔치가 벌어졌다. 다음날 아침에도 마을주민들이 외국인인 우리를 보려고 몰려왔다. 마을은 농·산촌으로 이 마을에서 버스운전사는 출세한 직업이다. 청년들은 중학교정도 졸업한 10여명이 구멍가게에 모여 담배를 태우며 할 일 없이 소일하고 있고 처녀들은 초등학교를 마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가정부로 가서 가족을 돕는 여성들이 많았고, 이 마을에도 시집오려는 여성들이 부족하여 장가를 못가는 총각들이 많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처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이나 도시외곽 출신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살던 여성들로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해 본 경험이 없이 통일교나 한국으로 결혼해간 친구나 친지 혹은 무허가 중매업체를 통해서 결혼했다.

결혼이전에는 교사나 회사원, 간호사 등 서비스업종사자들로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부모와 가족을 원조했고, 결혼한 오빠나 언니의 생활비를 돕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며 생활했던 여성들이다.

결혼동기 중 대다수의 여성들이 형제수가 많으며 언니나 오빠들이 열심히 일해도 생활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임금이 낮고 일자리도 없는 필리핀의 현실을 보면서 외국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모와 형제를 돕고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 보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많은 형제 속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성들로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가족생활 교육내용과 한국생활적응

필리핀은 국제결혼이 동남아시아 권으로 확대되는 시점인 2000년도 이후부터 CFO에서 국제결혼 상대 국가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출국 전 다양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타국으로 결혼해가는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 한국으로 시집 온 사례자는 종교기관에서 1달 정도 교육을 받았다. 필리핀 정부 주도로 PDOS교육을 받은 사례는 2008년 이후에 결혼하여 한국에 온 경우이다.

사례자 2, 8, 9 15는 결혼해온지 6년 이상자로서 통일교를 통해서 결혼해 왔다. 이 당시만 해도 CFO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의 비자문제로 크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1개월 이상 교회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한국에 도착하여 남편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목사관에서 1개월 이상 한국어와 한국생활적응훈련을 받았고, 한국 생활은 인내하면서 사랑과 봉사만을 신념으로 알고 결혼 생활에 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었다. 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는 한국생활 7년째이며 남편은 복지관에서 일하고 시어머니는 가정살림과 두 손자를 돌봐 주고 본인은 영어 학원 강사로 6년째로 친정부모도 돕고 시어머니와 필리핀 친정에도 두 번 다녀왔다.

사례 8은 두 아이의 엄마로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가족 간의 신뢰도 쌓고 친정도 도우며 살았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해 한국말과 글이 서투르나 시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6개월 전 아파트로 독립하였지만, 김밥 만드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휴일에는 시어머니를 돕는다.

사례 9는 10년이 지났으나 한국어가 서툴다. 입국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회사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필리핀의 아들과 어머니를 한국에 입국시켜 살고 있다. 남편과 갈등도 많았지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사례 15도 결혼 후 2년 동안 농촌에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친정보다 좋은 주거환경과 부엌설비 등 시설이 좋고 가족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자

녀들이 성장하면서 도시로 이사하여 방문교사도하고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언니가 되어 즐겁게 지낸다.

다음의 사례자들은 PDOS의 한국가정생활에 대해서 교육받은 자들이다.

사례 1, 3, 4, 5, 6 13 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시댁과의 관계를 염려하였다. 왜냐하면 PDOS의 교육내용이 한국의 고부갈등으로 인해 결혼이 파괴되는 사례를 장시간에 걸쳐 보았기 때문이다.

사례 4, 6, 7, 13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문화는 한국과 유사하나 시어른이나 남편이 개인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필리핀보다 심하다. 특히 필리핀 남성들은 게으르고 가족원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 한국남성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하나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다고 한다.

사례 1, 4, 6, 14 등은 PDOS의 교육에서 한국에 가면 시어머니를 존중해야하고, 일도 하지 않고 공주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농촌으로 가면 소도 기르고 일만 한다고 하였지만 농촌으로 왔으나 어려움은 없다. 특히 한국에 와서 학대받으면 돌아오라고 비행기비용까지 가지고 왔지만 언어가 잘 안 되는 것 이외에는 불편함이 없다.

사례 4, 7 은 필리핀에서 한국교육내용이 도시생활을 많이 보여주어 희망을 갖다가 시어머니나 남편이 구박하는 내용을 보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시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없어서 외로울 때가 많다. 농촌의 주택도 정비되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사례 7, 13 은 남편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남편은 필리핀 말을 배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말이 없고 가끔 큰소리를 치는 것이 정신적 학대 같아서 불안하다.

사례 2, 5, 14 는 한국에서 생활이 필리핀보다 향상된 느낌이다. 한국의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삶이 힘들 것이라고 교육받았으나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게 되어 환경이 좋고, 부업시설도 좋아서 요리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남편의 소득과 본인의 학원 강사소득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부모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

사례 1은 남편이 너무나 돈에 인색하다. 열심히 일만하고 즐길 줄을 몰라 친척와도 이혼 한 것 같다.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을 몹시 아까워하며 이웃이나 친척에게도 베풀 줄 모른다. 아이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필리핀가족을 돕는다.

사례 1, 4, 5, 10, 12, 14는 한국남성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

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즉 남편은 가정일이나 아이들 돌보기에 관심도 없으며 가만히 앉아서 “재떨이 가져와, 물 줘, 밥 줘” 등 앉아서 부인을 하인같이 부리기만 한다고 불평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가부장제도라면 참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사례 6, 7, 12, 14 등은 한국에 대한 교육에서 남편의 학대나 폭력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오면서 지옥 속으로 들어오는 심정이었다. 즉 폭력이 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인 1366도 안다면서 폭력에 대해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왔으나 남편들이 유순하고 착하다.

사례 9는 10년 전 결혼하여 영어강사로 취업도 하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다. 아기를 낳게 되자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아버지와 단절을 하였다. 필리핀에 두고 온 아들도 입양하여 현재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전 낳은 아들과 결혼 후 낳은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

사례10은 남편이 부모에 의존해 살고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다. 취업하여 친정을 돕고 싶으나 시부모는 살림만 할 것을 강요한다. 취업을 하면서 가족갈등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필리핀으로 가버리라고 하는 모습을 충소는 모습으로 오인하여 위협으로 느낀 사례자는 칼을 들고 대항하였다. 시부모들은 더 이상 머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례자는 시부모와 화해하고 살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회규범 때문에 이혼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례 11은 한국으로 결혼하면 가족을 도울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왔다. 한국에 대한 교육에서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였다. 남편 가게에서 5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였다. 남편은 결혼 할 때 빚을 졌다면서 돈도 주지 않고 일만 힘들게 시키며 집안 살림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독선적이다. 이에 반항하여 다른 집 가게에 나가 일하면서 한 달에 130만원을 벌어서 친정에 송금하고 있으나 남편은 필리핀으로 돈 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 13은 한국남성들은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교육받았는데 남편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시어머니에 의존하여 생활하기에 친정을 도울 수도 없고 자신도 일 할 곳이 없다.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청소 일을 하면서 필리핀 가족을 돕는다.

사례 12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혼하였으나 불편한 시어머니 간호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학원

강사로 뛰면서 가정살림살이도 혼자 하였다.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 자신도 학원 강사, 살림살이 시어머니 간호 등으로 힘든데 남편은 도움 줄을 모르고 “고맙다”, 수고 한다”는 등 말 한마디 할 줄 몰라 항상 야속하다. 그러나 시누이나 친척들이 한국남성들은 다 그렇다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한다.

사례 1, 3, 4, 6, 11, 13 들은 자신들이 한국 언어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남편들은 필리핀 언어나 문화 등을 알리고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부모형제만 중요시하고 필리핀 부모형제에 대해서는 알리고 하지도 않으며 송금하는 것에도 인색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기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필리핀의 부모를 돕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결혼해 온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살고 부모를 돕기 위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태도가 강하다는 연구(김오남, 2006: 보건복지부, 2005: 윤형숙, 2004; 채옥희, 홍달아기, 200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의사소통과 음식 문화,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문화적인 차이,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술과 담배, 도박,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성 등에서 갈등을 느낀다. 본 사례에서도 남편들의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은 참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필리핀사회는 이혼이 일상적이지 않는 사회규범을 가지기에 이혼결정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절망적인 것이다.

한국가정생활교육 내용은 한국가족특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PDOS 교육 내용을 필리핀과 한국의 차이를 문화의 특성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교육내용은 큰 틀에서 교육시키려는 시도보다 구체적인 문화차이(예를들어 손가락질하며 핀잔하는 것은 총으로 쏘아죽이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학대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하고 한국생활 적응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필리핀의 양면제 가족관계 중 하나인 부모형제를 돕기 위해 결혼이주동기가 되는 여성과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의 한국남성중 국제결혼하려는 남성들에게 출국하려는 국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결혼준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이

주여성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의 교육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문화를 알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국 전 가족에서 삶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는 필리핀의 CFO자료를 분석하고 PDOS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CFO 종사자와 간담회 및 한국으로 입국하기전의 결혼예정자 및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필리핀가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집단을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합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다수가 농촌출신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과는 딸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더 큰 특징을 가졌기에 부모나 형제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갖고 대부분 국제결혼을 선택하므로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둘째, 필리핀은 양성평등적인 나라로 가족제도는 양면 친족제이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매우 활발하고 생활력도 강하며, 결혼에 대한 행위자로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많은 형제 속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에게 아내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이들의 결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므로 양성평등적인 동반자적 시각으로 가족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필리핀에서 결혼 전에 시행한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은 호기심과 희망을 주었으나 가정학대나 폭력에 대한 비디오나 교육 자료를 보면서 편견과 불안감을 주는 교육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가부장적인 남성상에 대한 교육과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내용과 관계형성에 대한 기술을 교육하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정부적 차원에서 외국의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어나 문화를 교육

시키려는 외국현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결혼하려는 남성들에게도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관계형성을 위한 결혼 전 준비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취업을 원하며 대학졸업자는 교사나 기업에서 통역 또는 컴퓨터 일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 교육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취업과 소득활동이 결혼의 큰 목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생활적응과 2세 교육을 고려할 때 이들이 취업하기 전에 한국어(500시간정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있다면 이는 장차 국민을 위한 질적 복지임을 제안한다.

주제어: 결혼이민문화, 필리핀여성, 긍정적인 태도, 양변친족관계, 사전교육프로그램

참 고 문 헌

- 김민정. (2002). 필리핀 친족의 양면성과 집단 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3-36.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오남.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69.
-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사례연구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 김현경, 신동주. (200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결혼 생활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19-535.
- 김정석. (2009). 필리핀 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 사례 연구. **한국인구학**, 32(2), 11-27.
- 박희. (2002).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아시아연구**, 5(1), 123-158.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 신관희.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4, 10.16). 외국인 출신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 전북대의협력국. (2009). 필리핀 연수보고서.
-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Cahill, D. (1990). *Intermarriage in international contexts: study of Fillpina Women married to Australian Japanese and Swiss Men*. U. P.: Population Inc.
-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2008).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건수. 재외동포위원회 자료.
- Constable, N.(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laher, M. Williams, G. & Menderson, L. (2001). Population Characteristic, Health and Social Issue among Filipina in Queensland. *Austral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1), 101-114.
- Napier, A. Y. (1988). *The fragile bond: In search of an equal, intimate, and enduring marriage*. New York: Happer & Row.
- Pai Y & Adler, S. (2001). *Cultural foundations of education.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Rhacel, S. P. (2005). *Servants of Globalization*. 문현아 옮김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서울: 여이연.
- Rochas, R. & Rochas, G. (2006). *Curious Global Culture Guide 12*. 이은주 옮김(2007). **필리핀, 지구촌 문화충격 탈출기**. 서울: 휘슬러.

접 수 일 : 2011. 01. 24.
수정완료일 : 2011. 03. 22.
게재확정일 : 2011. 03. 29.